

미완성과 완성 사이: Still Acts

October , 2016 | PARK SUN YOUNG

page 1 of 2



ART

미완성과 완성 사이:
Still Acts

아트선재센터에 이블, 정서영, 김소라 세 명의 작가가 모였다.
'오늘날 미술관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진지한 물음은 이들을 소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PHOTOGRAPHY AN JI SUB
WRITER PARK SUN YOUNG



1 아직 레노베이션 중인 아트선재센터 1층 한편의 기묘한 풍경이 마치 중간지대처럼 보인다.
2 정서영 작가의 작품 '전면대'와 '꽃이 거리를 유지한 채 사물의 의미에 대해 사색하게 한다'.
원욱 배이지 왼쪽 바닥의 온갖 종이 박스와 천장에 매달린 이불 작가의 '사이보그' (1998년 작가
자아내는 디스토피아적 분위기의 3층 전시장 풍경.



엄밀히 말하자면 아트선재센터의 현재 물리적 상태는 미완성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레노베이션의 일부만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커넥트 1: 스틸 액츠 Still Acts>라는 전시가 열렸다. '스틸 Still'의 의미가 조용히 공명하는 것은 상징적이기보다 다분히 개념적인데, 전시는 소격동 144-2번지에 개관하던 1998년부터 첫 번째 정적 Pause 직전인 2004년까지 아트선재센터가 쌓아온 맥락과 축적을 현재화하는 시도다. 무엇보다 과거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기억의 퇴적물이나 소장 작품의 나열이 아닌 이불, 정서영, 김소라 세 작가의 작업을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어법을 선택했다. 1998-2004년은 이 세 명의 작가가 아트선재센터에서 각자 한 시절의 예술적 맥락을 다져낸 시간을 포용한다. '오늘'을 영두에 둔 과거의 상기는 생산적인 미래의 모색으로 이어진다. 아트선재센터 출입문과 외벽에는 1994년부터 2017년의 예정된 전시까지 연대순으로

적어놓은 가림막이 선연적으로 걸려 있다. 정문을 비껴 왼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한옥 한 채가 나타난다. 그동안 전시 작품의 맥락에서 은밀히 사용되던 한옥은 작가 준양 Jun Yang의 아이디어로 '패럴랙스 한옥 The Parallax Hanok'이라는 '만남과 대화, 휴식' 공간으로 태어났다. 1990년대에 새로 지은 한옥이라는 점에 착안해 '가짜'와 '모사'의 개념을 구사한 준양은 나무 무늬 리놀륨 바닥, 가짜 대리석 카운터, 한국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의자들로 공간을 디자인했다. 전통의 의미 대신, 패럴랙스(관점에 따라 물체의 위치나 방향이 변하는 차이 또는 시차)라는 개념을 더한 이 쿨한 한옥에서 당분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트선재센터의 전시는 늘 맨 위층부터 관람해야 했다. 이불 작가의 영역인 3층 전시장은 아득히 먼 미래 혹은 디스토피아적 풍경이 펼쳐져 있다. 온갖 종이 박

스로 뒤덮인 바닥, 전시장을 가로지르는 철골 구조물과 여겨지기 필력이는 비닐들, 전시장 기둥 뒤 또는 천장 한쪽에선 비닐에 싸인 '사이보그'들이 부유하고 있다. 이불 작가는 아트선재센터에서 각 시기마다 전시한 작품들로 과감한 톤의 '새롭게 놓기'에 도전했는데, 그녀의 말대로 '다른 것들을 섞어놓아 전체적으로 어떤 풍경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1990년대 그녀와 함께 했던 뮤지엄 그룹 강홍구, 고낙범, 섀 정, 니카무라 마사토의 작품들과 함께 새로운 감각의 지형도를 그려내고 있다. 전시장 입구, 비즈와 구슬로 장식한 98마리의 도미를 걸어둔 '장엄한 광채'는 1997년 MoMA에서 전시 오픈닝 직전 철거된 후 처음으로 재등장했다. '장엄한 광채'가 다시 아트선재센터에 등장하면서 20년 전 MoMA에서의 비극적인 철거는 철화된 셈이다. 가학성과 약취의 충격이아말로 '장엄한 광채'가 비로소 장엄해지는 지점이며, 다른 감각기관에 대한 시각의 특권화라는 이불 작가의 생각이 발현되는 순간이다. 한 층을 내려가면 방금 본 것들과 대조적인 여백과 긴장을 만난다. 2000년, 정서영 작가의 개인전 <전면대>를 상기시키는 고립된 풍경 속에 작품 '전면대'와 '수위실' '꽃'이 자리한다. 우리 시대에서 연상되는 기능을 잃은 애매모호한 사물들은 거리를 유지한 채 단단한 조각적 개념과 의미들을 흐트러뜨린다. 사물과 사물의 언어 사이의 대립, 무심한 조각과 관객 간의 모호한 조응을 가득 비추던 백색의 형광 조명은 작품이 놓인 공간과 조각을 즉물적인 상태로 보이게 하고 싶었다는 작가의 15년 전 바람을 실현해주었다.

리드미컬한 사유의 장을 빠져나와 1층으로 내려가면 김소라 작가가 지인들로부터 기증받은 96권의 책으로 이뤄진 '라이브러리'에 도착한다. 누군가에게서 버려지거나 없어져도 될 책들은 아직 레노베이션이 완성되지 않은 1층 로비 선반 위에 꽂혀 있다. 작가는 그 책들 속 어느 페이지의 글을 인용해 22개의 스킴어를 만들어 <없어도 모를 책>이라는 책으로 묶었다. 딱 세 줄로 된 글의 흐름, 가령 '편지를 쓴다. 없어질 편지를 쓴다. 무너지는 글자들로 없어질 편지를 쓴다'처럼 우회와 균열이 끼어드는 짧은 문장들로 말이다. 그러므로 96권의 책은 그녀에게 <없어도 모를 책>의 향해 방향을 만들어주었으며, 이는 전시 기간 중 매일 벌어질 퍼포먼스의 동기가 된다. 전시장 구성의 커다란 복사기는 관객들이 96권의 책 사이사이 혹은 어느 페이지를 복사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책 한 권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도록 배치한 도구이다. 십수년 전에서 되살아난 이 다채롭고 유의미한 전시들이 앞으로 아트선재센터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커넥트 1: 스틸 액츠>는 이내 번주가 더해진 <커넥트 2>로 이어질 지 모른다. 그리고 여기서 '스틸 Still'의 의미가 다시 한번 공명한다. 아트선재센터 <Still Acts> 전시는 11월 20일까지 열린다. ■

EDITOR 이다형 DESIGN 전문주